

고요한 산 속을 흐르는 강

가와카미무라(川上村)는 요시노가와 강(기노카와 강으로도 불림)의 가장 높은 상류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은 강이 아직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을 만큼 높은 곳입니다. 산속에는 수십여 줄기의 시냇물이 활엽수 원시림을 거치며 차고 깨끗한 물줄기가 되어 힘찬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가와카미무라는 깊은 골짜기와 우거진 숲, 탁 트인 전망과 아주 오래된 석회암 동굴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와카미무라의 역사는 임업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삼림지는 500년 동안 이 지역의 명물인 단단하고 흠 없는 삼나무 목재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이 있는데, 우뚝 선 수령 400년 된 삼나무는 마을 주민들의 삼림 자원에 대한 애착과 손길들을 묵묵히 보여 줍니다. 이곳의 임업은 단순히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 예술가들은 이 목재를 활용해 독창적인 수공예품을 탄생시킵니다.

가와카미무라에서는 숲과 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연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맨손으로 아마고(일본산 송어) 잡기, 로프와 헤드 램프를 지참하고 동굴 탐험하기 등 많은 가이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더 여유로운 체험을 원한다면, 산속 온천에서의 입욕이나 예술가에게 배우는 도예 워크숍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야마토카미이치역에서 가와카미무라 중심부까지 버스가 운행되지만 이 마을은 차를 타고 둘러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근 지역에 렌트카 업체가 있어 일본 국내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손쉽게 차량을 렌트할 수 있습니다.